



나병환자 열 사람을 고쳐주시다

오늘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열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나중에 돌아와 큰소리로 (주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린 사람은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 하나뿐이었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이란 나라 밖의 사람이요, 이 단자였으며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아홉 사람은 하느님의 선택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려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17장 18절) 하시고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17장 19절)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낯선 사람들과 나라 밖의 사람들이 신앙의 순례를 받고 하느님을 찬양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스스로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릴 줄 모르는 아홉 사람의 나병 환자들은 분명 하느님의 백성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으면서 마음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생활로 드러낸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의 죄악에 대한 핑계로 ‘크리스천적 정열’을 내세우며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했던 사람들, 도시를 약탈하고 파괴하면서 그리스도께 대한 열성을 불려일으킨다고 소리치며 십자군에 뛰어나간 사람들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어떤 지위가 주는 것에 만족하면서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거나 사회적 신분이 낮다고 해서 사람들을 미워하는 ‘직업적인 크리스천’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나병 환자 아홉 사람과도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할 때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잘 난 체하고 스스로 만족하며 마치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을 권리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그리스도 시대에 배척을 당한 바를 그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에 대해 참으로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가지려고 온갖 방면으로 노력함으로써 감사를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신앙이 전파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대접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우리의 최초의 응답,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최초의 응답은 글자 그대로 큰소리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체성사를 통해 큰소리로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에 온 정성을 다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하느님을 찬미하도록 이끌어주시길 단단히 결심하도록 합시다.

오늘 성체성사에서 힘을 길러 나아가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줍시다.





마산교구 수녀연합회

마산교구 수녀연합회 구성원은 2019년 현재 마산, 진주, 창원, 거제지구 44개 본당 15개 수도회 86명의 수녀와 성지 수녀 1명과 특수사도직 수녀 1명으로 총 88명의 수녀가 수도회 별로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를 1년의 임기로 돌아가

면서 봉사하고 있으며 교구 사제들과 협력하여 신자들의 영성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마산교구 수녀연합회는 2019년 9월 24일~26일(2박3일)에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총회를 열고 1년 동안의 활동과 결산보고를 하고 신·구임원진의 이·퇴임식을 가졌습니다.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님의 '로망과 사랑'을 주제로 영성 강의를 듣고, 교구 내 성지순례를 이틀 동안 하였습니다. 끝으로 통영에 가서 아름다운 다도해를 보는 시간으로 일정을 마쳤습니다.

수녀님들은 느낌발표시간을 통해 9월 순교자 성월에 교구 내 사봉성지(복자 정창문 안토니오)와 명례성지(복자 신석복 마르코)와 지세포성지(복자 윤봉문 요셉)와 수영순교지(복자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를 순례하며 곳곳에서 성지해설을 열정적으로 해주신 김길상 안드레아 신부님과 최문성 마르코 신부님과 정윤희 베드로 신부님과 사봉공소 회장님 덕택으로 교구 내 순교자들에 대해 소상히 알게 된 것이 가장 뜻 깊었음을 얘기했고, 순교복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더 열심히 수도생활을 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수녀님들은 이번 연수가 수녀들간의 단합과 친교를 다지는 장이 되었고 영육간의 건강을 되찾는 충전의 시간이었음을 얘기하며 고마움을 전하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구 가톨릭교육관에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수녀연합회를 지지해 주시고 배려해주신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님과 2박3일을 꼬박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고 마음을 써 주신 박창균 시메온 총대리 신부님과 본당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본당신부님들께 지면을 통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519번째 이야기

티로와 시돈 2

신은근 바오로 신부 · 신안동본당 주임

티로는 옛 도시와 신도시로 나뉘어 있었다. 옛 도시는 해안가에 원래부터 있던 도시였고 신도시는 구시가지 맞은편에 있는 커다란 섬에 만들었다. 바다가 해자 역할을 했기에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도 함락하지 못했다. 하지만 희랍의 알렉산더 대왕은 바다를 메우는 작전으로 접근했다. 800m 독길을 만든 것이다. 이 독길은 지금도 남아 있다. 티로는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고 수만 명이 처형되고 노예로 팔렸다. 이후 티로는 그리스 지배를 받는 식민지가 되었다.

티로가 속한 페니키아와 이스라엘은 말이 통했다. 사투리 정도로 이해했다.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도 페니키아 말을 썼다. 이집트에서도 히브리인은 국경지대에 살았기에 페니키아 말을 유지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아람어도 페니키아 말에 속한다. 이들은 기원전 15세기 이미 문자를 만들었고 희랍어 모체가 되었다. 영어 알파벳도 희랍어를 변형한 것이기에 페니키아 글자가 뿌리이다.

티로는 바알과 함께 몰록(Moloch)신을 섬겼다. 예절 중에는 어린이를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 있었다. 당연히 이스라엘에선 금지되었다.(신명 20,2) 하지만 히브리인도 예루살렘 남쪽 게헨나 골짜기에서 몰록에게 아이를 바치곤 했다. 게헨나는 히브리어 ‘게벤 힌놈’을 음역한 것이다.(여호 18,16) 게(Ge)는 골짜기를 뜻하고 벤(Ben)은 아들을 뜻한다. 직역하면 힌놈아들 골짜기다. 땅 주인이 힌놈이란 사람의 아들이었기에 이렇게 불렸다. 몰록신앙은 히브리인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있었다. 주민들이 아이를 불태워 바쳤기에 히브리인도 따라 했던 것이다. 유다 임금 중에도 왕자를 불 속에 들여보내 몰록의식을 치른 이들이 있었다.(2열왕 16,3) 기원전 7세기 유다 왕 요시아는 몰록신전을 없애고 골짜기를 정화했다.(2열왕 23,10) 하지만 제물을 태우던 화덕은 살렸고 죄수와 부랑자들 시신을 그곳에서 태웠다. 동물시체도 쓰레기와 함께 태웠다. 그러다 보니 늘 매캐한 연기가 피어났고 악취 심한 장소로 변해갔다. 게헨나 골짜기가 지옥을 상징하게 된 이유다. 몰록과 함께 바알을 섬기는 티로 역시 유대인에겐 비슷한 이미지로 남았고 로마시대엔 교류를 끊었다. 2세기엔 이곳에도 기독교 공동체가 성행했다. 교회 학자 오리게네스는 티로에서 선종했다. 7세기부터 무슬림 지배를 받다가 1124년 십자군 정복으로 기독교 공동체는 부활했다. 십자군이 머물던 1294년까지 18개의 성당이 지어졌다.

언론인들에게 고함

김현주 율리야나 가톨릭여성회관 관장

민주화 열망에 대한 대학가의 시위, 노동자 농민의 저항, 사회의 반독재 운동 등 현장의 소리들이 철저하게 봉쇄된 시절이 있었다. 5·18민주항쟁이 그랬고,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영화 ‘택시 운전사’에 등장한 독일기자 위르겐 한츠 페터와 같은 ‘기자 정신’을 가진 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박정희 유신 권력과 그 이후 군부 독재 시절에 가장 절박했던 언론의 과제는 ‘사실 보도’였다. 사실(팩트)조차 전달이 되지 않았던 암흑의 시대를 끝낼 수 있었던 건 1987년 6월 항쟁의 영향이다. 언론인들 스스로 투쟁하여 쟁취한 자유가 아니어서 그런지 요즘 기자들을 보면 고삐 풀린 망아지 같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한국 언론 자유 지수는 현재 41위로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올해 발표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결과에 따르면 한국 언론 신뢰도가 22%에 그쳐 38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꼴찌라고 한다. 최근에는 ‘한국 언론 사망’ ‘기레기 아웃’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였다. 한국 언론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추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통제 장치 없는 가짜뉴스들의 범람과 의심(옳고 그름에 대한 식별) 없이 수용하는 국민들의 태도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모 신문 칼럼에서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가짜뉴스의 예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되었다는 설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스모킹 건이 된 태블릿 PC 조작설을 꼽았다. 모두 법원 판결, 정부 조사, 국과수 등을 통해 가짜뉴스라고 판명되었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받아들인다. 또 TV조선의 최근 기사 <강경화, 일 고노 외상에 ‘미안하다’ 문자>란 제목의 기사는 일본 측 관계자를 취재원으로 쓴 기사였는데 오보인 것이 드러났지만 정정은 없었다고 한다.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독일 내각은 가짜뉴스를 지우지 않으면 600억 원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의결했고 프랑스·러시아·싱가포르도 가짜 뉴스라고 판단한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안을 시행 중이다.

최근 조국 장관 관련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메이저급 언론과 지상파 방송조차 사실의 진위 검증 없이 편파적이고 불확실한 기사를 마구 내보내는 것을 본다. 심지어 그것을 악용하여 우리 편은 결속하고 상대방은 혐오 세력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는 매체들이 있다. 나쁜 언론을 가려내야 할 몫은 이제 국민에게 달렸다. 이번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기자들의 수준을 제대로 알게 됐다. 이제 환경의 변화로 SNS(사회망서비스)로 활동하는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리고, 실시간 팩트 체크를 공유하는 시민감시단이 온라인상에서 연대하여 활동하는 것을 본다.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이라고나 할까. 이제 언론은 더 자신들만의 점유물이 아니게 됐다. 언론인들은 냉정한 현실 앞에 겸손하게, 양심적으로, 책임지는 기사를 쓰기 바란다. 언론인 스스로 반성과 자정 노력이 없다면 다시금 국민이 나서 언론 개혁의 촛불을 들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현주 스텔라 • 수필가



초가을 햇살만큼이나 뜨끈한 어깨통증 치료를 마치고 버스 정류장에 섰더니 등에는 배낭 가방을, 옆으로는 작은 백을 멘 스무 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길을 건너오셨다. 버스가 도착하자마자 북적거리던 정류장이 금세 한산해지려는 차. “아이고, 나한테 같이 타자고 안 하고 혼자 가뻘네. 저게 109번이었나 보네. 우짜노” “여

있어라. 담에 115번 온다카네. 그거 타도 된다아이가. 내가 갈게줄게”

길 건너에 어르신들을 위한 문해 학교가 있나 싶었다. 내가 타야 할 버스는 더 기다려야 할 참이어서 옆 반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어르신을 보며 이영자 어르신이 생각났다.

올해 봄 학기부터 ‘노인 미술 지도자’ 과정을 시작했다. 아동 미술학원을 오래도록 해서 굳이 수업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데 하는 자만심은 첫날 첫 수업에서 깨져버렸다. 익숙하지 않은 왼손으로 그림을 그려보고(처음 그림을 접하는 어르신 체험으로) 역할극으로 그 그림을 설명하면서 쉽지 않은 길을 택했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수업 과정에서 대상자 어르신을 한 분 정해서 ‘자기 회상 수업’과 ‘매체 수업’을 진행하고 그 과정을 사진과 글로 남기고 마지막 날에는 발표하게 되었다. 발표보다 어려운 것이 20회 정도 되는 수업을 함께할 어르신을 찾고 어떤 매체 수업을 할지가 문제였다.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소개받은 대상자는 아흔이 되어서야 복지관에서 한글을 익힌 이영자 어르신이었다. 강제노역 당한 아버지는 히로시마에서 돌아가시고, 전쟁 중에 어머니도 여의고 학교 문턱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굴곡진 역사를 고스란히 받아들이셨는데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고 감사한 일 천지였다. 지점토를 밀어서 들꽃을 찍을 때는 아홉 살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했고 물감이 번지기만 해도 아이처럼 손뼉 치며 신나하셨다. “선생님 아 다음 수업은 언제고? 너무 재밌어서 할때 죽겠다”

내게 ‘할머니’는 오지 않을 미래라고 생각했다. 아흔이 되도록 한글을 모른 게 억울하지 않고 이제라도 배운 게 감사하고 신난 영자 할머니가 ‘할머니’를 제대로 가르쳐 주셨다. 복지관의 수채화 반에 들었는데 100세에는 전시회가 목표라고 하셨다. 내 꿈은 영자 할매같은 할머니다.

짜구난 강아지

시제의 힘마디 +

1992년도 겨울, 부제였던 저는 진례 공소에 파견 나갔습니다. 혼자 지내기 적적할까 염려하신 신자께서 강아지 한 마리를 마당에 묶어 놓았습니다. 이름을 ‘청’이라 지어 불렀습니다. 이름만큼 착한 변견(똥개)이었습니다. 비었던 공소에 부제가 와 있으니 신자들 발걸음이 잦아지고, 오실 때마다 빈손으로 오기 무안한지 개밥을 가져왔습니다. 강아지는 신자들의 사랑과 밥을 듬뿍 먹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많이 먹은 강아지가 ‘짜구’가 난 것입니다. ‘짜구나다: 배가 터질 듯이 많이 먹어 탈이 나다’는 사투리입니다. 표준말로는 ‘자귀’라고 합니다. ‘자귀’는 개나 돼지에 생기는 병으로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붓고 발목이 굵으면서 일어 서지 못하는 병’입니다. 사람에게에는 쓰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키가 좀 작는데 몸집이 크면 “짜구났냐?”라고 놀렸습니다. 자칫하면 큰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거제성당에서 사목할 때 도둑이 들었습니다. 힘들게 방범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가져갈 게 없었던지 방만 어지럽히고 갔습니다. 도둑님이 창문을 힘들게 뚫고 들어왔는데... 사실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방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아직은 가져갈 게 없기 때문입니다.(돈은 은행에... 그 외는 공용 물품이라서)

다시 1992년 겨울... ‘짜구’난 개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으니 공소 어르신이 “짜구 난 놈은 밥만 며칠 굶기면 돌아옵니다. 걱정 마십시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며칠 만에 강아지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욕심 때문에 생긴 병에는 굶는 게 약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괴롭습니다.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교구 사회복지국장

기억할 선종 사제

10월 19일(토) :

故 이강해(스테파노) 신부 7주기



교구장 동정

견진성사

일시: 10월 13일(주일)

장소: 장승포성당

추계주교회의

일시: 10월 14일(월)~18일(금)

장소: CBCK

성경잔치 파견미사

일시: 10월 20일(주일)

장소: 창원문성체육관

교구/본당

소공동체장 연수 - 진주시구

일시: 10월 17일(목) 13:00

장소: 옥봉동성당

문의: 사목국 055·249·7021~3

제8회 교구성경잔치

일시: 10월 20일(주일) 09:30

장소: 창원문성체육관

문의: 성경부 055·249·7025~6

제443차 가나혼인강좌

일시: 10월 20일(주일) 13:00

장소: 교구청

문의: 가정사목국 055·249·7028~9

신학생 부모피정

일시: 10월 20일(주일) 10:30

장소: 명례성지

문의: 성소국 055·249·7061

가정성화와 생명수호미사

일시: 10월 23일(수) 10:00

장소: 옥포성당

문의: 가정사목국 055·249·7028~9

진주시구 정찬문화재단 제2회 정기연주회

일시: 10월 25일(금) 19:30

장소: 진주교육대학교 대강당

지휘: 이승엽, 반주: 윤정은

*전 좌석 무료 입장입니다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외국인 공동체 미사

영어 미사

창원: 매(주일) 15:00/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진주: 매(주일) 14:30/ 칠암동성당

거제: 매(토) 19:30/ 장평성당

베트남어 미사

창원: 매(주일) 18:00/ 명서동성당

진주: 매(주일) 12:30/ 칠암동성당

통영: 매 1, 3주(토) 19:30/ 대건성당

거제: 매 2, 4주(토) 19:30/ 국산공소

동티모르 미사

통영: 매 3주(토) 20:30/ 태평동성당

거제: 매 3주(토) 22:30/ 국산공소

진영: 매 3주(토) 17:30/ 진영성당

문의: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청년성서 그룹 공부 모임

대상: 성경공부에 관심 있는 청년

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의: 청년성서모임 010.3156.6993

교구 합창 단원 모집

연습: 매주(화) 19:30

장소: 교구청 1층 강당

대상: 남·여 신자(만 55세 까지)

문의: 교구 합창단 총무 010·4589·8120

위원회/기관/단체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10월 기도모임

일시: 10월 14일(월)

성체조배 11:00~11:50, 13:00~13:30

강의 및 미사 13:40~14:30(이청준 신부)

대상: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봉사자 및 전신자

장소: 월남성당

문의: 010·3903·8234

정의평화위원회 사회교리 - 미사와 특강

일시: 10월 14일(월) 19:30

장소: 사파동성당

주제: 노동현장의 법률적 이해

강사: 김두현 변호사

문의: 정의평화위원회 055·261·8201

가톨릭여성회관 개관 43주년 기념 민들레축제

일시: 10월 16일(수) 15:00 (봉사자 감사의 날)

장소: 마산아리랑관광호텔 무궁화홀

일시: 10월 18일(금) 11:00~23:00 (민들레주점)

문의: 가톨릭여성회관 055·255·5080

명례, 가을 음악회 '가곡과 찬양의 밤'

일시: 10월 19일(토) 19:30

장소: 명례성지 신석복 마르코 기념성당

문의: 현현주 소피아 010·5513·5628

2019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다락방) 전국대피정

'이 빛나는 길'(메세지 347번)

일시: 10월 21일(월) 09:00~17:00

장소: 남천성당 051·623·5428

주관: 마리아사제운동

부산교구 평신도 체나콜로 봉사회
참가신청: 각 본당봉사자, 10월 13일(주일)까지
준비물: 미사, 묵주, 합본 (*피정전 9일기도 권고)
문의: 010·9399·5454

* 07:00 차량출발 진주역 / 마산역 / 창원만남의 광장
(회비: 1만 원)

199차 ME주말 안내(2박 3일)

일시: 11월 15일(금) 19:00~17일(주일) 17: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김주호(요아킴)·조정선(안나) 부부

010·7744·1551, 010·2736·3496

● 200차 ME주말 : 2020년 1월 10일(금)~12일(주일)

● 201차 ME주말 : 2020년 2월 21일(금)~23일(주일)

폼겨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table border="1"> <tr> <td>10월 26일 KOREAN AIR</td> <td>이탈리아, 이스라엘 순례</td> <td>12월</td> <td>449 만원</td> </tr> <tr> <td>10월 28일 KOREAN AIR</td> <td>터키, 그리스 순례</td> <td>13일</td> <td>399 만원</td> </tr> <tr> <td>11월 11일 AEROMEXICO</td> <td>과달루페와 중남미 순례</td> <td>19일</td> <td></td> </tr> </table> ▶ 출발 확정 · 전일정 공동경비포함 ◀ 분도여행사 02.852.8525	10월 26일 KOREAN AIR	이탈리아, 이스라엘 순례	12월	449 만원	10월 28일 KOREAN AIR	터키, 그리스 순례	13일	399 만원	11월 11일 AEROMEXICO	과달루페와 중남미 순례	19일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 010-2652-0706	신세계피부비뇨기과 SHINSEGAE UROLOGY & SKIN CLINIC 피부질환/ 비뇨기질환 · 수술/ 전립선암 검진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F(자유시장 사거리) 진해시니어클럽 자연 숲 천연비누 판매 주문 제조 비누 만들기 강좌 www.jhcsc.or.kr 055.541.0126, 055.605.6297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10월 26일 KOREAN AIR	이탈리아, 이스라엘 순례	12월	449 만원												
10월 28일 KOREAN AIR	터키, 그리스 순례	13일	399 만원												
11월 11일 AEROMEXICO	과달루페와 중남미 순례	19일													

마산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내용: 식당봉사, 방과후수업(요리, 방송댄스, 볼링)
기간: 3월부터 12월
장소: 마산장애인복지관 및 지역사회
문의: 055·247·5195~7

민족의 화해를 위한 평화순례 취소

파주 지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으로 DMZ 출입이 통제되어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문의: 민족화해위원회 055·261·8201

수도회

성소자 모임 (개별방문 상시접수)

일시: 10월 19일~20일, 11월 23일~24일, 12월 24일~25일
장소: 고성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문의: 미카엘 수사 010·8798·2986

렉시오 디비나 피정

내용: 유덕현 아바스와 최재용 원장이 함께하는 자연속에서 하느님 만나기
일시: 매주(토) 14:00~(주일) 14:00
장소: 고성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문의: 010·2816·1986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권민자 수녀)

1박2일: 10월 26일~27일, 11월 16일~17일
3박4일: 11월 21일~24일, 12월 19일~22일
8박9일: 11월 4일~12일, 12월 26일~1월 3일
40일파장: 12월 13일~2020년 1월 21일, 4월 14일~5월 22일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기 타

꽃동네청년선교회

일시: 2020년 1월 6일(월)~22일(수)
장소: 필리핀 마닐라, 타클로반
모집마감: 10월 27일(주일)까지
주최: 예수꽃동네형제회자매회
문의: 010·4220·2833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금' 2020년도 지원 대상자 공모

목적: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과 연구 지원

부분: ①장학금 지원(학부, 석박사 과정)
②학술 연구비 지원(천주교 관련 연구)
신청기간: 10월 16일(수)~12월 16일(월)
접수방법: 마산교구 사무처 055·249·7017, mssamu@hanmail.net

문의: 주교회의의 평신도기금운영위원회
02·460·7533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bck.or.kr) '알림마당/소식' 참조

우울증 극복을 위한 집단상담 참가자 모집

강사: 권창현 신부(한국상담심리학회 정회원, 가톨릭 상담심리 전문가)
시간: 10월 23일(수) 08:30~20:30
장소: 의령성당 강당
참가비: 2만 원(식대), 검사비 무료
신청: 선착순 10명, 055·573·4701

제8회
마산교구성경잔치

일시: 2019.10.20(주일) 9:30~17:00 장소: 창원 문성대학교 문성 체육관

09:30~10:00	성경말씀 대독 및 성가 찬양	12:00~13:00	• 점심 식사와 분할 차례 준비
10:00~10:20	• 사제기도 및 전례	13:00~15:00	• 성경말씀 대독(본선)
10:20~10:30	• 성가 찬양		• 사제기도 및 전례
10:30~12:00	• 성경말씀 대독(본선)	15:30~17:00	• 미사 및 사제기도 (교구장 재가환 콘스탄틴 주교)

마산교구 사목국 상경부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17:30, 19:30~21:00
장소: 중동성당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중동성당 사무실 055·298·4657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주례	문의
교구	10월 14일(월) 19:00	월남동성당	목주기도의 신비	이청준 신부(F. 하비에르, 교육관 관장)	이청준 신부	010·5072·5612
창원지구	10월 14일(월) 19:00	반송성당	고통의 섭리와 치유	진홍장(타데오, 삼성산)	안찬모 신부(이나시오, 삼위일체수도회)	010·9421·3377
청년	매주(화) 19:30	교구청별관리자	성령기도회	19:30 목주기도 / 20:00 기도회(첫째주: 미사, 셋째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0월 19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 이

라파엘여행사 ◆ 이스라엘,오르탄 10일 11/18, 12/3 (289만원) ◆ 이스라엘 9일 1/5 (299만원) ◆ 이태리 9일 11/7 (279만원) 1/21 구정(299만원) ◆ 성모발현지 13일 10/28(399만원), 2/3 (389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	진영삼성안과 대학병원급 장비보유 백내장·녹내장 전문병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장동로 3 (경남빌딩 2층) 진영소방서 맞은편 055.724.0988 원장 임영진 (미카엘) 우리농 직매장 2호 이용시간: 월~금 09:00~17:00 토 09:00~15:00 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055.293.5605	가톨릭신문투어 ▶ 10/12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58만원 ▶ 10/27 발칸반도 12일 365만원 ▶ 11/16 이스라엘 일주 9일 375만원 ▶ 11/22 유럽 성모발현지 13일 369만원 ▶ 12/3 동부유럽 12일 350만원 02.2281.9070 www.cttour.org	쌍용자동차 마산 제일대리점 (마산역 앞) 태도건 다나엘 010.2232.1456 티볼리, 코란도, 렉스턴 스포츠 칸 2020년형 출시·노후 경유차 지원 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함초 소금 200g 1만 원 신청: 055.391.1205
---	---	---	--



교황청 선정 선교의 모범

김수환 추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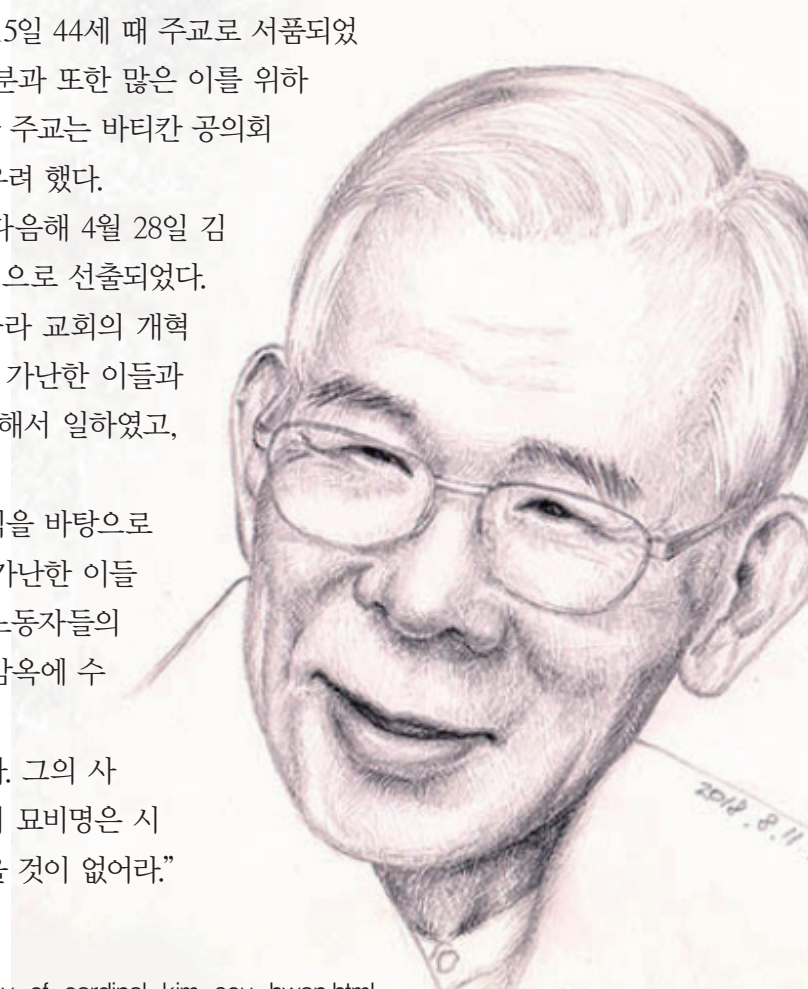
김수환 추기경은 1922년 5월 8일 대구, 믿음이 깊은 가톨릭 가정에서 출생했다. 그의 할아버지는 신앙 때문에 감옥에서 아사로 순교하였고, 아버지 김영석 요셉과 어머니 서정하 마르티나는 자녀들 중에서 성직자가 나오기를 희망하였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김수환과 그의 형제 김동환은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고 사제가 되었다.

김수환은 안동에서 사목을 시작하였다. 1966년 2월 15일 44세 때 주교로 서품되었는데, 마산교구의 첫 주교가 되었다. 사목표어는 “여러분과 또한 많은 이를 위하여(pro vobis et pro multis)”였다. 초대교구장으로서, 김수환 주교는 바티칸 공의회에서 제안된 교회 쇄신의 정신에 따라, 마산교구를 세우려 했다.

1968년 서울대교구의 12번째 대주교로 선출되었다. 다음해 4월 28일 김수환 대주교는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47세 때 추기경으로 선출되었다. 서울에서, 김수환 추기경은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따라 교회의 개혁과 사회 참여의 원칙을 세웠다. 그는 인권 수호자로서 가난한 이들과 억압받는 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해외선교를 위해서 일하였고, 북한 주민을 위해서 남북 교회의 교류를 촉진시켰다.

김수환 추기경의 사회교리는 견고한 인간 존엄성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선을 추구하는 데 있었다. 김수환 추기경은 항상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의 친구였다. 따뜻한 마음으로 농부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싸웠을 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이들과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과 집을 잃은 가난한 이들을 방문하였다.

김수환 추기경은 2009년 2월 16일 오후에 선종하였다. 그의 사목표어는 한국어와 라틴어로 묘비에 새겨져 있고, 그의 묘비명은 시편23편에서 채택되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이 없어라.”



출처: <http://www.october2019.va/en/testimoni/i-testimoni/biography-of-cardinal-kim-sou-hwan.html>

주일 진례

입 당 송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옵니다.

본 기 도 주님, 주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시어, 저희가 끊임없이 좋은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제 1 독 서 1열왕 5,14-17

화 답 송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제 2 독 서 2티모 2,8-13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

복 음 루카 17,11-19

영 성 체 송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